

## ●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 아내는 남편을 바꾸고, 발명은 세상을 바꾼다



김 병 오

한산중학교 교사  
(ajukbo@hanmail.net)

‘걱정 마세요. 다시 방 한 칸에서 시작하면 되지요. 늘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당신을 믿어요.’ 이 말은 일본에서 성공신화를 창조한 MK택시의 유봉식 회장이 경쟁자들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고민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 주면서 그의 아내가 이야기한 내용이다. 아내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밤새 몰라보게 초췌해진 남편의 어깨를 활짝 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여러분은 밤마다 깊은 시름에 잠기면서 잠 못 이루고 출근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담긴 편지를 써서 소파 옆 탁자나 식탁 위에 올려놓은 적은 있는가?

언제까지나 희망과 웃음 없이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시울만 적실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밝게 웃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콧등을 시큰하게 만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준비하는 것이 시련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좋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빛나게 하며,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 축복까지 준다. 하지만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며,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 아침 잠자리에 누운 채 남편을 출근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내 남편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자리에 누운 채로 남편을 출근시키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리 없고,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

게도 존경 받지 못한다. 즉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고 나약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남자들에게 가정은 휴식처이고 재충전소이다. 지치고 피곤한 육체와 정신을 편하게 쉬면서 새로운 힘을 충전 받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야 남자들이 직장에서 의욕적으로 자신 있게 일할 수 있고, 또 발명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괴테도 ‘파우스트’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이다.

물론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평등해져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를 바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축 쳐진 어깨를 추스를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특히 출원하는 기본으로 준비하여 보자.

## 발명은 세상을 바꾼다

너무나 편리해 그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주변의 생활용품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 묻혀져 있지만 그 제품이 발명될 당시에는 대단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많은 장소에서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에디슨의 전구나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볼펜(형가리에서 신문기자로 일하던 ‘라테스라오 비로’가 발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시대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관련 제품들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여러분이 지금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나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일, 또는 은행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예금을 이체하거나 진료를 받는 일은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와 그 주변 기기가 발명된 덕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언젠가 영국의 한 잡지에서 조사한 내용에서는 화장실, 그 중에서도 수세식 변기를 인류가 발명한 것 중 최고라고 발표하였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재미있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여러 집단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추수감사절 모임에서 사회자가 ‘지난 2천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1백명 가량의 응답을 분석해 보니 참으로 의아한 답이 나왔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인쇄기’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현재는 컴퓨터나 인터넷에 가려져 찾아보기조차 힘든 물건이지만 이 전문가 집단들은 인쇄기가 지식의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계획으로부터 성관계의 관습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피임약이 꼽혔다. 피임약은 1960년대 성해방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여성 해방주의의 발전을 자극했고, 그로 인해 서구사회의 전통적 가족구조를 망가뜨려 버렸다.

물론 최근 25년 동안 가장 혁신적인 발명으로 뽑힌 기술인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발명품이다. 이처럼 어떤 제품이든 발명될 당시는 물론 또 다른 발명가들의 아이디어를 더해가면서 점점 더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제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다친 곳 하나 없이 차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최근에 발명된 ‘미소 전자 기계 시스템’은 나노기술을 이용한 제품으로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초소형 지능형 자동탐지 및 감응장치이다. 이 기술은 우리 눈에 띄지도 않고 체감할 수도 없지만 몇 십, 몇 백, 심지어 몇 천 분의 1초 사이에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노기술 덕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도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에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적응하면서 살고 있어 발명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크나큰 혜택의 정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 없이 발명을 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말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주인공이 될 것이다.

책 속의 이야기

영동한 발상 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

귀가 시려워, 손이 시려워  
‘그린우드의 귀마개’

눈이 내리면 골목길은 온통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다. 눈싸움하는 아이와 썰매 타는 아이들이 거리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눈이 오면 밖으로 뛰어나가려 한다. 그럴 때면 어머니들은 추운 것을 걱정하며 목도리를 둘러 주고, 귀마개를 씌워주었다. 혹독한 겨울바람으로부터 귀를 보호해주던 귀마개를 처음 생각해 낸 사람은 체스터 그린우드라는 어린 소년이었다. 15세의 소년 그린우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스케이트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틈만 나면 아버지에게 스케이트를 선물로 사달라고 졸랐다.

‘아버지! 저도 스케이트를 갖고 싶어요. 제 친구 토미도 스케이트가 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다. 체스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뛰어나왔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여러 개의 선물 꾸러미가 보였다. 체스터는 선물의 내용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잠시 뒤, 아버지가 침실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체스터,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어서 열어 보렴.’

체스터는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자를 뜯었다. 상자 안에는 검은색 스케이트가 들어 있었다. 체스터는 스케이트를 보고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체스터는 스케이트를 들고 짹 짹 밖으로 뛰어나갔다. 밖으로 나간지 한 시간쯤 뒤에 체스터가 파랗게 된 귀를 문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체스터의 귀는 아주 파랗게서 검은빛이 돌 정도였다. 체스터는 찬바람을 견뎌내지 못하고 귀에 동상이 걸려 버렸다. 하는 수 없이 체스터의 아버지는 체스터에게 추운 날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날씨는 도무지 따뜻해지지 않았다. 체스터는 밖으로 나가기도 못하고 다만 창문 옆에 앉아 창밖을 내다 보고 있어야만 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얼음이 녹아버릴 텐데, 귀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체스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손으로 귀를 감싸 보았다. 손으로 귀를 감싸고 스케이트를 타면 귀가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는 도저히 스케이트를 탈 수 없었다. 한참을 생각하던 체스터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맞아! 손 대신에 털가죽으로 귀를 감싸면 될거야.’

체스터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